



# '22년 2월 러-우전쟁 이후 한국 식료품 물가는 OECD 전체 평균의 1/2수준으로 안정적 유지

- 2022.3~2024.2월 식료품 물가상승률(전년 동월비) : (한국) 5.83%, (OECD 전체) 11.66%, (OECD 유럽) 17.94%

## <보도 주요 내용>

4월 21일(일) 연합뉴스 「‘기록적’ 한국 식품 인플레이션…OECD 평균 추월, 35개국 중 3위」, 4월 23일(화) 머니투데이 「OECD 평균 추월한 한국 먹거리 물가…과일·외식이 끌어올려」 등 기사에서 ❶ “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률은 6.95%로 OECD 평균(5.32%)을 웃돌았다”, ❷ “최근 우리나라의 먹거리 물가 상승세는 다른 OECD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파른 모습이다”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.

## <농림축산식품부 설명>

❶ 러-우 전쟁 발발 이후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는 OECD 전체 평균의 1/2수준, 유럽 평균의 1/3수준으로 안정적 유지되어 왔습니다.

2022년 2월 러-우 전쟁 발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불안 및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평균 5.83%로 OECD 전체 평균 11.66%, OECD 유럽 평균 17.94%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습니다.

<참고1 : 최근 2년('22.3~'24.2) 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>

구분	평균	'22.3	'22.6	'22.9	'22.12	'23.3	'23.6	'23.9	'23.12	'24.1	'24.2	'24.3
한국	5.83	3.51	6.47	7.59	5.27	6.31	4.47	5.51	6.19	5.92	6.95	6.66
OECD 전체	11.66	10.05	13.44	15.39	15.59	14.2	10.37	8.59	6.74	6.25	5.32	-
OECD 유럽	17.94	11.31	17.58	21.37	22.6	23.45	17.97	16.25	13.25	12.28	10.44	-

\* 출처 : OECD Data Explorer

② 올해 2월 우리나라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OECD보다 높은 것은 지난해 2월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상 영향으로 과일·채소류 생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, 3월에는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.

지난해 1~2월 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이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올 1~2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.

<참고2 : 1~3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물가상승률(전년동월비, %)>

연	월	한국	OECD 전체	OECD 유럽
2023	1월	5.51	15.26	22.32
	2월	5.73	15.02	23.29
	3월	6.31	14.2	23.45
2024	1월	5.92	6.25	12.28
	2월	6.95	5.32	10.44
	3월	6.66	-	-

\* 출처 : OECD Data Explorer

우리나라의 식료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및 겨울철 기상재해\*로 과실류와 채소류 생산이 감소하여 1~2월에 전년 동월 대비 각각 5.92%, 6.95%를 기록하였으나, 3월에는 기상 호전 및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 등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6.66%로 둔화세로 전환되었습니다.

\* 겨울철 강수량(23.12~2월, 전국) : 236.7mm(평년비 2.7배, 역대 최고), (강수일수) 31.1일(평년 19.5일)  
 일조시간(채소 주산지) : (2월) 평년비 40% 이상 감소, (3월 상순) 평년비 10~20% 감소

담당 부서	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	책임자	과 장	신우식 (044-201-2231)
		담당자	사무관	남기헌 (044-201-2234)

